

전북대병원 재활로봇치료 장비 도입

고명환 교수 '재활로봇 실증지원사업' 공모 선정 실제 임상 활용, 제품 최적화 위해 기업에 피드백

전북대학교 고명환 교수(의대 재활의학교실)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재활로봇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재활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을 통해 구입된 재활로봇장비

를 병원내 보급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해 그 효과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고명환 교수는 기존에 확보돼 있는 임상연구 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내 고가의 보행 재활로봇치료 장비가 국비 지원을 통해 새로 도입된다. 기존 상지 재활



로봇치료 장비를 포함해 다종의 재활로봇치료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뇌졸중 척수질환, 소아발달장애, 신경근골격계 환자 등 다양한 환자에게 양질의 재활로봇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국산 재활로봇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해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최적화를 위한 피드백도 기업에 제공할 예정

이다. 또 다양한 임상 연구를 실시해 의학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재활로봇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의 로봇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명환 교수는 "이 사업을 통해 보행재활로봇치료 장비가 도입되면 사업 취지에 맞게 적극적 활용을 통해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국내 재활로봇 기업에게는 최고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홍순직 총장이 맞춤형 회장품조제관리사 과정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코로나 위기 극복을"

도내 스포츠클럽 잇단 방문, 어려움 청취·해결책 모색

전북체육회 정강선 회장 등 임원들은 지난 22일 전주비전스포츠클럽과 군산스포츠클럽, 남원거점스포츠클럽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도내 공공스포츠클럽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부터 휴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순차적으로 재개장을 하고 있지만 클럽 회원들은 코로나19 전 대비 약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일부 스포츠클럽은 수입 없이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스포츠클럽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그는 청소년 건강증진과 우수 선수 발굴 등 스포츠클럽에서 끝나지 않는 수 육성의 참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강선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체

육계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며 "도 체육회에서도 스포츠클럽들이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수준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개관 스포츠클럽으로 현재 도내에는 12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있다. 최근에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에서 입실 양궁 스포츠클럽이 선정 돼 앞으로 5년간(연 800만원) 4억원의 국가 기금을 지원 받게 된다.

/장은성 기자

상업계고 학생들 실력 맘껏 펼쳐봐

전북상업경진대회 25일...도내 12개 특성화고 참여

'제7회 전북상업경진대회'가 오는 25일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대한상업교육회 전북지회와 군산여자상업고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상업·정보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2개 특성화고 학생 및 교사가 참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최식과 경연종목은 취소됐다.

경진종목은 총 10종목으로 회계

실무, 창업 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 실무, 비즈니스 영어, ERP, 금융 실무, 세무 실무, 경제골든벨, 취업실적 프리젠테이션 등이다. 각 종목별 금상(1명)·은상(2명)·동상(3명)과 한국생산성본부장상(2명), 대한상업교육회전북지회장상(2명) 등 총 100명을 시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업경진대회는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된다"면서 "상업계고 학생들이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주민 직업교육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홍순직(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홍순직 총장과 이효숙 교수(미용건강과)는 무더위 속에서도 학습에 최선을 다하는 훈련생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혁신도형(3유형·87개 자율개선대학 중 15개 대학 선정 지원)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내에서 유일하게 직업교육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판로개척 세미나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최근 도내 예비 창업자의 초기판로 개척과 유통채널 확대를 돕기 위해 Market-In 판로개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arket-In 판로개척 세미나는 시제품 개발단계를 거쳐 완성된 신제품의 판로 확보와 기존 제품의 유통채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이다. 전주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판로개척 및 유통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입점 교육비, 제품개선비, 인증비 등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오르카투자자문 김민철 대표가 투자 판로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0년 투자 트렌드 변화 △성공 투자 사례 △기업가정신 확립을 통한 투자 거래 기회 △투자를 위한 로드맵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전주대 판로개척세미나는 올해 총 5회 운영되며, 6월부터 9월까지 각기 다른 주제로 비대면(온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는 2020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우수 창업동아리에 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게임과학고 '우수창업동아리' 영예

2020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는 2020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우수 창업동아리에 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 특성화고 직업능력강화사업 일환으로 활동하는 한국게임과학고 창업동아리는 전국 본선에 진출, 지난 22일 서울 세텍(SETEC) 전시장에서 열린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동아리를 시상함으로써 학교 동아리 활성화 및 우수모델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이 제작한 아이템은 교령회사 회가 고도화 되어가면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앱의 필요성으로 기획했으며, 사용자를 배려한 보기쉬운 UI, 주목성

좋은 디자인으로 기존의 웹 사이트와는 차별성을 두어 간편하고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다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살려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제작된 앱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예정이며, 실전 창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과 오픈마켓을 통해 런칭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게임과학고는 2020년 지식재산 일반 선택과목 선도학교로 선정돼 학생들에게 발명·특허·지식재산에 관한 교육과 취업·창업의 역할 함양, 진로 탐색 기회 다양화 등 지식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

/장은성 기자

www.jmaeil.com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